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MAGAZINE

예보광장

2023 AUTUMN+WINTER
VOL.53

예보 광장

2023 AUTUMN+WINTER Vol.53

발행일 2023년 12월 22일 발행인 유재훈 발행처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전화 02-758-0114 팩스 02-758-0040 디자인·제작 문화공간 02-2266-1897

Contents



04

여기는 KDIC 1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06

여기는 KDIC 2

예보의 새로운 등대,
FINANCIAL LIGHT HOUSE

08

KDIC가 합니다

더 넓어진 예금자보호제도

10

취임 인터뷰

소통과 공감, 미래를 향한
최고 경쟁력이라 믿습니다

12

KDIC 줄인 1

송금 후 아차 싶은 순간!
예금보험공사를 기억하세요

14

KDIC 줄인 2

해외 예보인들, KDIC에서 한 수 배우다

16

KDIC+ESG

반려해변 정화활동에 대해 궁금하다면 주목!

18

KDIC & ART

예보 갤러리를 소개합니다

20

KDIC+GLOBAL 1

신들의 섬, 자카르타는 어떤 곳일까?

22

KDIC+GLOBAL 2

戰時 우크라이나
예금보험기구(DGF)의 분투기

26

KDIC TOGETHER 1

차등보험료율제 깊이 살펴보기

30

KDIC TOGETHER 2

KDIC의 이웃을 소개합니다

32

KDIC+HEALTH 1

아삭한 달콤함 '당후루'
경험하는 디저트의 시대

34

KDIC+HEALTH 2

직장인을 위한
365 건강 스트레칭



36

직장인의 서재

'일잘러'는 습관으로 승부한다

38

KDIC 라운지

재밌고 똑똑한 당신을 위한 영상 모음. zip

40

트렌드 돋보기 1

AZ는 모르는 MZ세대 설명법

42

트렌드 돋보기 2

모르면 손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사회의 모습은?

44

함께 만드는 예보광장

추천 맛집

회수기획부 김시승

SIFI정리부 서혜민

해외재산조사부 윤성현

보험리스크관리부 이수안

인사지원부 최수진

IT전략운영부 허도담

자유 기고

기금관리실 김진혁

금융안정TF 이호택

예보광장 독자 설문조사

〈예보광장〉은 독자 여러분과 호흡하며 더 나은 예금보험공사 사보 제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자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사보 개선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응모방법

QR코드로 접속하시면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참여하기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예금보험공사 장애인유도팀 창단

예금보험공사는 장애인 고용 증진과 장애인 스포츠 발전에 앞장서고자 유관기관 최초로 장애인유도팀을 창단했다. 유도팀 창단으로 선수들은 운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금보험공사 장애인 유도팀 창단식

2023. 10. 6.(금)

KDIC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한국장애인고용공단
Korea Employment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SEOUL PARK SPORTS ASSOCIATION

왼쪽부터 이성호 선수, 김시락 선수,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동훈 선수, 김현빈 선수

장애인 고용 확대에 이바지

우리나라에는 260만명 이상의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 숫자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1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은 아직까지 3%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고용법을 시행했다. 이 법은 50인 이상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공사도 이러한 의무를 다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현재 3.6%, '24년부터 3.8%로 상향)을 충족시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였다. 공공 및 민간기업의 다양한 채용 사례를 참고하여 장애인체육 분야라는 새로운 직무를 발굴하였다. 공사는 지난 7월 1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와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다양한 논의를 거쳐 장애인유도 선수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의 두 기관과 협력하여 공개 모집을 진행한 끝에, 최종적으로 역량있는 4명의 장애인유도 선수들을 채용하게 되었다.

이번에 공사에 입사한 선수들은 모두 2023년 전국 하계 장애인유도선수권대회에서 1, 2위에 입상한 유망주들로, 특히 김동훈 선수는 2023년 10월 개최된 항저우 아시안 패러게임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장애인유도팀 창단식을 통해 힘차게 출발!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0월 6일 본사 광통홀에서 정식으로 장애인유도팀 창단식을 가졌다. 창단식에는 예금보험공사 유재훈 사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양충연 사무총장, 서울시장애인체육회 황재연 수석부회장, 서울시의회 이종환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등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해 창단을 축하했고,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과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유재훈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공사 유도팀 창단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장애인스포츠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게 된 것 같아 기쁘다”며, “공사에서 새롭게 펼쳐질 선수들의 도전과 노력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향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수 대표 이성호 선수는 “공사의 일원이 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며, “공사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날 유재훈 사장은 예금보험공사 회사명(會社名)과 CI가 새겨진 유도복을 선수들에게 전달했다. 선수들은 앞으로 예금보험공사 소속 선수로서 본격적으로 훈련하는 한편, 다양한 국내외 대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Welcome! 새로운 식구를 소개합니다!



김동훈 선수

“유도는 자신보다 덩치가 큰 사람도 넘길 수 있는 스포츠예요. 거기에 열심히 하다보면 정신도 좋아지고 몸도 튼튼해지죠.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에 있을 패럴림픽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인데요, 관심 가져주시는 만큼 노력하여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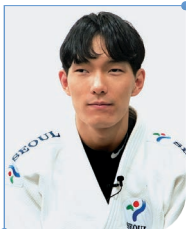
주특기 양팔 업어치기 중목 시각 73kg 이하급
주요 경력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1위, 2024년도 국가대표 최종 선발



김사락 선수

“진심으로 제가 공사에 입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열떨한데요. 공사에 입사한 만큼 이전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할테니,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특기 한팔 업어치기 중목 시각 73kg 이하급
주요 경력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2위



김현빈 선수

“유도는 저에게 ‘도전과제’ 같습니다. 앞으로 유도를 통해 이뤄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중에는 패럴림픽 금메달과 같은 목표도 있는데요, 계속 지켜봐 주시면 새삼에서 꽃으로 성장해나가는 저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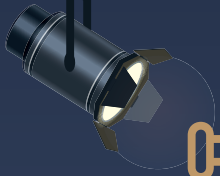
주특기 모든 기술 중목 시각 60kg 이하
주요 경력 2024년도 국가대표 최종 선발



이성호 선수

“공사에 입사해서 다른 장애인유도 선수한테 귀감이 되는 위치에 올랐다는 것이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앞으로 유도팀의 만행으로 동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공사 직원들에게 유도를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특기 발다리후리기 중목 청각 100kg 이상급
주요 경력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1위, 2024년도 국가대표 최종 선발



예보의 새로운 등대, FINANCIAL LIGHT HOUSE

예금보험공사 스튜디오를 오픈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계약자와
소통하고자 한 걸음 더 내디뎠다.
본사 15층에 스튜디오를 오픈한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방송국 부럽지 않은
다양한 장비들이 알차게 갖춰져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모습일까?
스튜디오의 문을 두드려보자.



스튜디오 부조총실의 모습

오픈! KDIC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줄 스튜디오



스튜디오 오픈 제막식 기념 단체사진(왼쪽부터 문형욱 이사, 윤치용 부사장, 유재훈 사장, 박은하 홍보대사, 스튜디오 명칭 공모 당선자, 이성규 홍보실장)

올해 초 미국 SVB 사태가 발생했을 때, 휴대폰(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단기간에 대규모로 돈을 인출하는 ‘디지털 런’ 현상이 발생했다. 하루 만에 은행 예금액의 50%가 빠져나갈 정도였다고 한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지난 9월 22일 공사 사옥 내 스튜디오를 오픈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스튜디오 내부에는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촬영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방송 장비(촬영 장비, 조명, 프롬프터, 음향장비, 라이브 방송 장비 등)들이 마련되어 있다. 예보는 이를 활용하여 금융회사 불안 시 신속하게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하거나 해외 예보기구나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소통 콘텐츠 등을 제작하는 등 금융계약자들이 금융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스튜디오 입구에 있는 스튜디오 현판

이름도 멋진 예금보험공사의 새 스튜디오

앞으로 예보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게 될 스튜디오의 정식 명칭은 ‘파이낸셜 라이트 하우스(Financial Light House)’이다. 이 이름은 예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정한 이름이다. 등대의 빛이 바다를 향해하는 배들을 지켜주듯, 금융위기 상황 속에서 금융계약자들을 지켜주는 예보의 역할을 담았다고 한다.



올해의 주요제작 영상

지난 9월 22일 스튜디오 오픈 기념방송을 시작으로 이미 이 곳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몇 편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한 바 있다. 어떤 콘텐츠들을 이곳에서 촬영했을까? 한 번 살펴보기로 하자.



1

스튜디오 오픈 기념방송



스튜디오 오픈을 기념하기 위한 방송으로 방송인 정범균의 사회로 스튜디오의 명칭 및 의미, 스튜디오 내부 모습 및 각종 전문 장비 등을 소개했다. 이후 유재훈 사장, 박은하 홍보대사와 함께 스튜디오 현판 제막식도 진행하고, 스튜디오 개설 취지, 오픈 소감 등을 이야기하고 신규 광고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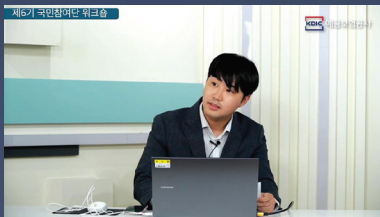
영상
바로가기



촬영 일시: 2023년 9월 22일
출연자: 유재훈 사장, 박은하 홍보대사, 방송인 정범균

2

국민참여단 발대식 (라이브방송)



6기 예보 국민참여단을 대상으로 라이브 형식의 발대식을 1부, 2부에 걸쳐 진행했다. 1부 참여단 위촉식에서는 6기 국민참여단 위촉장 수여, 국민참여단 소개, 활동 안내와 5기 국민참여단의 활동 사례 및 후기를 공유했다. 2부 혁신 워크숍에서는 예보 소개, 2023년 혁신 아이디어 공모 결과 및 반영 사례 등을 소개했다.

촬영 일시: 2023년 10월 18일
출연자: 성과경영실 차현우 차장, 정성훈 계장

3

'예보제도 개선 주요 내용 설명' 토크쇼



공사 유튜브 채널 '예보TV'의 슬기로운 금융생활 코너에서, 올해 달라진 예금보험 제도를 소개하였다. 토크쇼로 진행된 이 방송에서는 차현진 이사가 출연하여, 2023년 10월 17일부터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서 5천만원의 보호한도를 각각 따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였다.

영상
바로가기



촬영 일시: 2023년 10월 20일
출연자: MC 채지민, 차현진 이사

4

'되찾기 서비스' 경험 이야기



예보의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한 경험 이야기를 들어본 방송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착오송금반환지원부 신재민 부장이 출연하여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실제 제도 이용자 3명을 스튜디오로 초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떻게 공사를 통해 착오송금한 금액을 반환 받았는지에 대해 생생한 경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영상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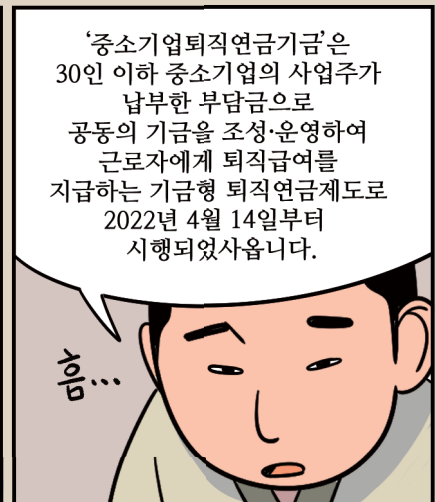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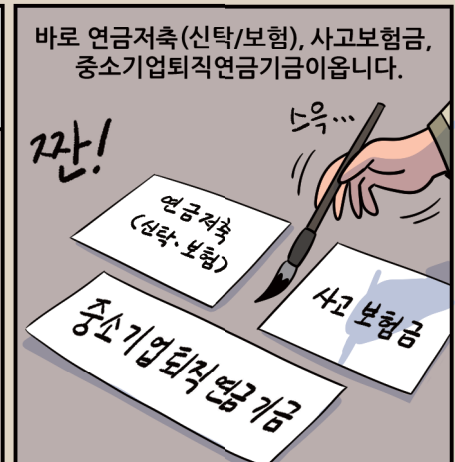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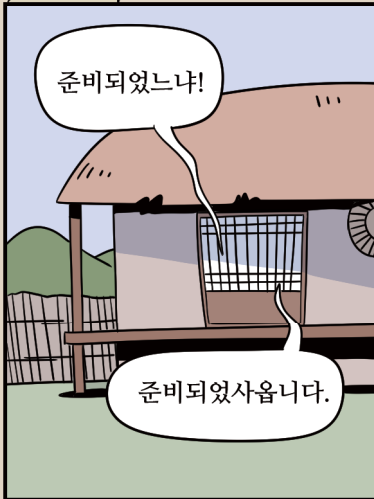


촬영 일시: 2023년 10월 20일
출연자: MC 채지민, 신재민 부장, 제도 이용자 3명





더 넓어진 예금자보호제도



우리가 보통 은행에 돈을 저축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돌쇠라는 사람이
A 은행에 일반예금 5천만 원,
연금저축 5천만 원, 합이
1억 원이 있었다고 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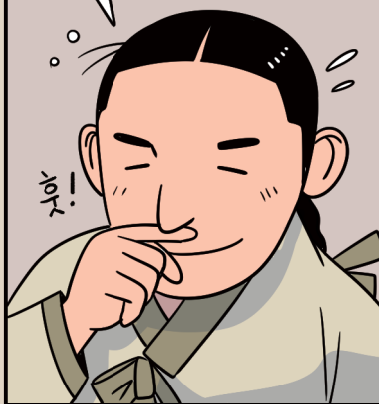
기존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만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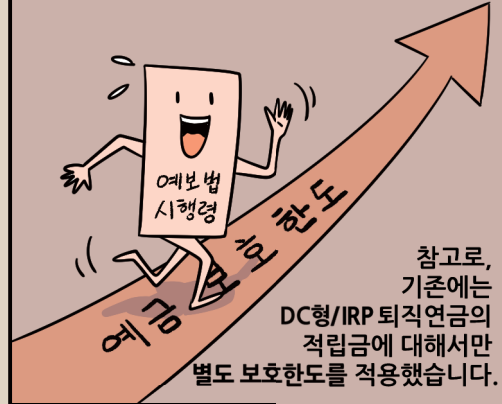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예금도 5천만 원!
연금저축도 5천만 원!



각각 따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각각 별도로
예금보호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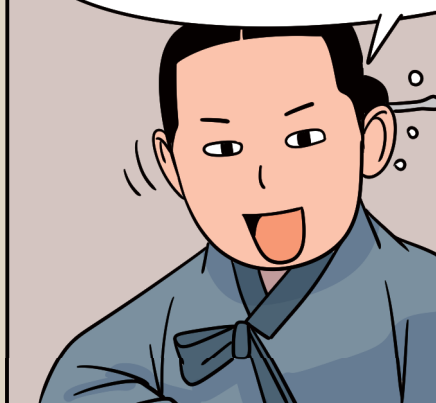


참고로,
기존에는
DC형/IRP 퇴직연금의
적립금에 대해서만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신협·새마을금고)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미래의 위기에 대처하는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안전하게 보장해 준다고 하니,



우리의 삶 또한
예금보험공사가 있어
정말 든든하구나.



소통과 공감, 미래를 향한 최고 경쟁력이라 믿습니다

이병재 기금관리단장

지난 7월 이병재 단장이 신임
기금관리단장으로 임명됐다. 기쁘기도 하지만,
지속되는 금융 위기 속에서 기금관리단을
이끌게 된 만큼 책임감도 적지 않게 느껴진다.
게다가 예보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해야 할 일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언제나 그래왔듯이 예보 구성원들이
소통과 공감을 통해 더 단단해진다면,
앞으로의 과제들도 슬기롭게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후배 직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예보인 DNA’

올해 7월 기금관리단에 큰 변화가 생겼다. 공사에 입사하여 미래전략실, 채권관리부, 은행금투관리부, 은행리스크관리부, 금융정리부, 기획조정부 등 다양한 부서를 고루 경험한 이병재 단장이 예금보험공사 신입 기금관리단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2000년 3월 입사해서 올해 7월 기금관리단장이 되었습니다. 입사 후 실무자부터 시작해서 팀장, 부장, 이제는 단장직까지 맡게 되었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직장생활 전반전에는 성공을 꿈꾸며 나아가지만, 직장생활 후반전에 이르면 이를 넘어서는 더 큰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 이병재 단장 또한 이제는 회사를 더 나은 곳, 더 좋은 곳으로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단계에 와 있다. 그렇다면 이병재 단장이 요즘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다.

“예보인 DNA를 후배들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보다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제가 공사 생활을 하면서 선배들로부터 받았던 좋은 영향을, 제가 배웠던 선배들의 리더십과 업무스타일 등을 후배들에게도 물려주고 싶습니다.”

이병재 단장은 공사에 근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 경험으로 회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겪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이때가 자신의 예보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시절이라고 말했다.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파산재단 조기종결 시스템을 운영하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 법원에서는 공사에서 파산관재인 역할을 하는 것이 법원의 재량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상황까지 갔는데요, 추운 겨울에 법원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준비하기 위해 정말 매일같이 밤을 지새웠던 것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각종 자료를 준비하고 열심히 반론을 준비했지만, 법원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결국 저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때의 성취감과 희열은 지금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일류는 ‘소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법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때의 그 기억은 이병재 단장의 예보 생활에서 어떠한 지향점을 설정하는 한 계기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병재 단장은 기금관리단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고 싶을까? 넉넉히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를 물어보았더니, 일단 창립 30주년을 뜻깊게 준비해 나가고 싶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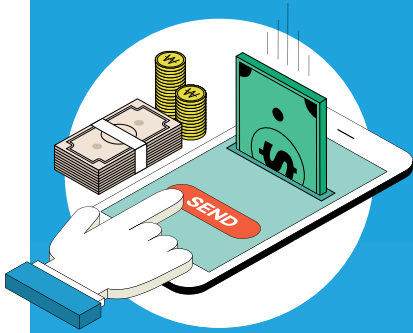
“공사 창립 30주년을 기금관리단의 관점에서 보면 예금보험제도도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예금 중심, 예금자 중심의 보호였다면, 이제는 보호상품도 보다 광범위하게, 금융계약자 중심의 포괄적 보호도 검토해 보아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병재 단장은 ‘소통’을 추가로 거론하였다. 활발한 소통 문화를 통해 예보 구성원들 각자의 잠재된 선한 본능과 능력을 일깨울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직원들의 인성과 능력, 이 두 가지는 예보가 어느 기관보다도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능력 좋은 직원들이지만, 회사 내에서는 자신의 기량을 100%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라며, “직원들의 선한 본능과 능력을 일깨우는 것은 결국 ‘소통’이지 않을까, 리더십의 핵심도 ‘소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병재 단장은 ‘소통’은 직급, 직위를 불문하고 모두가 가져야 하는 덕목으로 예보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아랫사람도 윗사람에게, 윗사람도 아랫사람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활발한 소통 문화가 형성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송금 후 아차 싶은 순간! 예금보험공사를 기억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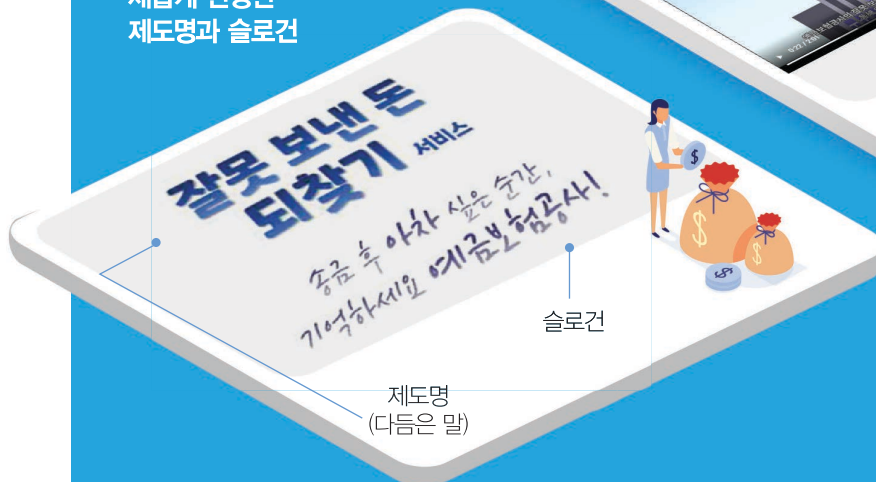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의 이용 현황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착오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빠르게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KDIC zoom'에서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의 이용 현황을 통해 개선 내용과 그동안 성과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새로운 이름

새롭게 선정된
제도명과 슬로건



제도명
(다듬은 말)

슬로건



모션그래픽 등으로 제작된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안내 콘텐츠

예보는 '23년 1월부터 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기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한자어로 된 제도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다듬은 말',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했다. 공모전은 약 4주 동안 공사 임직원, 국민참여단, SNS 기자단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를 통해 쉬운 제도명(다듬은 말)과 슬로건을 선정했다. 예보는 다듬은 말을 병행 사용하며, 제도 홍보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의 2년의 성과

예보는 '21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2년간('23년 6월까지) 접수된 23,718명(385억원)의 반환지원 신청을 심사하여 그 중 10,603명(149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했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건에 대한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하여 7,015명에게 착오송금액 86억원을 찾아주었다. 이 중에서는 1천만원 초과 고액 착오송금을 한 23명(6.5억원)도 포함되어 있다. 반환 방법을 살펴보면, 95%(6,642명)가 자진반환으로, 4%(285명)는 지급명령으로, 1%(88명)는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했다.

착오송금인은 공사의 제도 이용 시,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경우에 비해 비용은 70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92일 더 빨리 되찾을 수 있었다.

숫자로 보는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2년

신청 현황 **23,718건** **385억원**

반환 현황 **7,015건** **86억원**

주요신청 현황

반환 세부현황



금액별
36.6%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나이별
65.1%

30대~50대



지역별
53.8%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송금 유형별
65.1%

은행→은행
계좌로 송금

평균지급률

96.0%

평균소요기간

46.7일 소요

자진반환

평균지급률

96.2%

평균소요기간

41.5일 소요

지급명령

평균지급률

91.9%

평균소요기간

148.5일 소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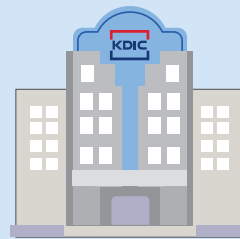
착오송금 반환지원 반환 현황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온라인 신청

- 사이트 : kmrs.kdic.or.kr
- 접속방법 : PC(모바일은 후후 지원 예정)
- 준비물 : 공동인증서, 이체(송금)확인증*
- * 본인 신청이 아닌 경우, 추가 서류 필요



방문 신청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공사 예보 1층
- 문의 : 1588-0037
- 준비물 : 신분증, 이체(송금)확인증*
- * 본인 신청이 아닌 경우, 추가 서류 필요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이용자의 생생한 경험담



영상 바로가기

전00님

저는 출연료를 잘못 지급했어요. 착오 송금을 발견했을 당시에는 진짜 아찔했어. 이거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되나 하고요. 회삿돈을 횡령한 게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래도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있어서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안00님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자주 이용하는데요. 실수로 큰 돈을 택시 기사님한테 잘못 송금했어요. 처음에는 카카오톡에 연락해서 기사님께 반환 요청을 했는데 안 돌려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찾아보니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있어 바로 신청했습니다.

김00님 저는 철거 작업 용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0 하나를 더 기재해서 돈을 송금했는데요.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업체에서 연락을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도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신청했어요. 혼자였다면 절대 못 돌려받았을 것 같네요.

해외 예보인들, KDIC에서 한 수 배우다

예금보험공사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그램 실시



10월 31일~11월 2일 예금보험공사 본사와 예금보험공사 글로벌 교육센터에서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해외 예보기구를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선진 금융 비법을 전수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2017년 이후 9번째로 실시된 이번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지금 소개한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3개 대륙 17개국의
예금보험기구 임직원이
예금보험공사 2023년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살펴본
KDIC의 위상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2023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그램(이하 GTP)'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예보기구 대상 교육 프로그램으로, 예금보험제도 도입 및 발전을 희망하는 해외 예금보험기구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오프라인 형태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3개 대륙 17개국에서 39명의 예금보험기구 임직원이 참여했다. 이는 기존 계획했던 20여명에서 거의 두 배 많은 인원으로 KDIC의 예보제도가 많은 나라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예금보험공사, 선진 금융 비법 전수에 앞장서

예보는 이번 프로그램의 주제를 ‘부실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정리’로 삼고, 공사 업무 담당자들의 주제별 강의와 함께 세계은행(World Bank) 서울센터, 미국·일본·말레이시아 예보, 예보 자문위원회 위원 등 외부 전문가들의 특강도 진행했다.

또한, 마지막 날에는 참가국들의 정리제도 발표 및 그룹 토론을 통해 각국의 정리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예보는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예보기구 임직원들을 위해 ‘강의 영상을 녹화하여’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게 하고, 별도의 ‘온라인 Q&A 세션’도 열어 보다 많은 국가의 예보기구 직원이 금번 연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예보는 “우리나라의 금융위기 극복 및 예보제도 운영 경험을 해외 각국과 공유해 한국형 예보제도 확산 및 글로벌 리더십 제고에 기여하겠다”며, “이러한 노력으로 형성된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홍보하는 등 민간 부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인호 차장이 'KDIC의 위기대응계획'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 세계 17개국 39명의 예보기구 임직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Tip Box

2023 GTP에서 만난 해외 예보인들



이름 Zintle Malgas
국적 South Africa
소속 Corporation for Deposit Insurance

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 경험을 배워 볼 수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특히, KDIC가 어떻게 예보제도의 틀을 형성하고 발전시켰는지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배워 볼 수 있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이름 Rabiatal Adawiah bt Abd Rahman
국적 Malaysia
소속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PIDM)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것이 코로나19 전이었는데요, 이렇게 다시 다양한 국가 분들과 교류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은 다르지만, 예보제도에 대한 유용한 세부적인 정보를 많이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KDIC.



이름 Voo Chee Gan
국적 Malaysia
소속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PIDM)

저는 KDIC에서 제공하는 자료들과 강사 분들의 강연을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가장 좋았던 것은 다양한 나라의 예보기구 사람들을 만나고 나라별 예보제도 운영 사례에 대해 이해하게 된 점입니다.



이름 Evrim Apan Ceylan
국적 Türkiye
소속 Saving Deposit Insurance Fund(SDIF)

KDIC에서 저희 기관에 초대 메일을 보내와서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건설적이고 유익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세계 각국의 예보기구 사람들과 만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반려 해변 정화활동에 대해 궁금하다면 주목!

개별 정화활동의 A 부터 Z 까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5월 17일 충남 보령시 소재의 원산도 해변을 반려해변으로 입양하고 공식적으로 첫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펼쳤다. 이는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함으로 전 세계의 환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해결하려는 개개인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처럼 스스로가 환경보전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트렌드에 맞춰 예보에서는 해양쓰레기도 청소하고 활동 참여로 인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반려해변 개별 정화활동의 가이드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활동방법에 대한 궁금증, 속 시원하게 모두 해결해보자.

Q. 예보의 반려해변인 원산도 해변은 어떤 곳인가요?

A. 원산도 해변은 서해에서 찾아보기 힘든 남향의 해변이다. 조류의 영향이 적어 해수욕을 즐기기에 훌륭한 조건을 갖추었으며, 보령해저터널 개통으로 편하게 육로로도 방문할 수 있게 되어 최근 각광받고 있는 곳이다.



원산도 해변의 모습

이동 방법

주소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4길 48-37

① 승용차 약 3시간 소요(회사 출발 기준)

② 열차 용산역 → 대전역(무궁화호, 2시간 55분)

→ 원의 정류장(102번 버스, 1시간 20분) → 도보 1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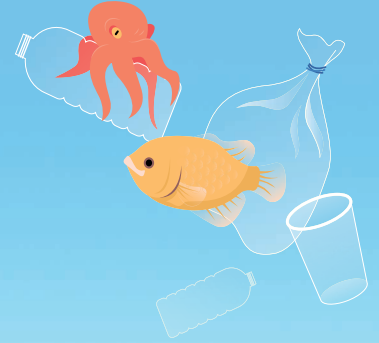


반려해변 정화활동 모습



Q. 정화활동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정화활동에 참여하려면 ESG경영부 최원재 차장(☎0854), 이한울 조사역(☎0856), 이근철 계장(☎0857)에게 사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 시 참여인원, 활동일자, 정화도구 수령방법(현지/회사) 등을 기재해야 한다.



Q. 반려해변 정화, 쓰레기만 주우면 안 되나요?

- A. 정화활동을 하려면 출발 전 공사 ESG경영부 또는 현지(반려해변 주차장 컨테이너 내부)에서 정화도구를 수령해야 하며, 쓰레기 수거 시 클린스웰 앱을 통해 수거한 쓰레기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다.

Q. 활동 시 유의해야 할 것이 있나요?

- A. 정화활동 시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고, 맨손으로 잡지 않는다. 둘째, 유리 조각, 낚시 바늘 등 날카롭고 위험한 물건에 다치지 않게 유의한다. 셋째, 내용물을 알 수 없는 쓰레기는 개봉하지 않는다. 넷째, 상처 입은 동물 등을 발견하면 접근하지 말고 신고한다.

클린스웰 사용방법



다운로드 → 회원가입 → 언어설정 → 활동정보 입력 → 수거 항목 입력 → 활동 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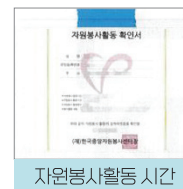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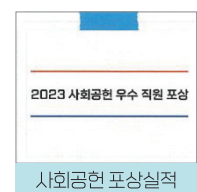
Q. 정화활동을 마친 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 A. 정화활동을 마무리하려면 먼저 수거한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원산도 해변 내 쓰레기 수거용 녹색 컨테이너)에서 정리한 뒤 정화도구를 반납하고 클린스웰 앱에 결과를 제출한다. 이후 공사 담당자에게 사내메일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기념품을 수령하면 된다.

Q. 반려해변 정화활동을 봉사시간으로 인정 받으려면?

- A. 반려해변 정화활동을 공식적인 봉사실적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1365포탈 가입 및 실적 등록을 위한 아이디를 제출하면 된다. 여기에 등록된 실적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별도의 절차 없이도 봉사시간으로 인정된다. 인정시간은 1일 2시간 이내이며, 활동사실 확인을 위해 활동사진 등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활동 참여 인센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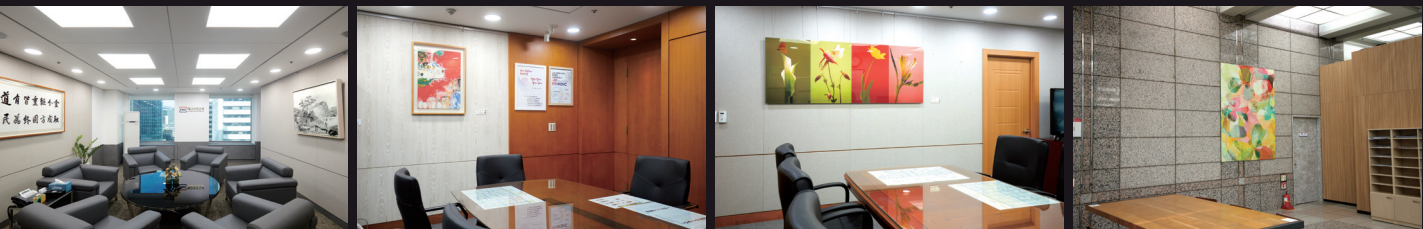
예보 본사 15층 복도 갤러리

예보 갤러리를 소개합니다

동양화, 서예, 서양화까지 다양한 예술작품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제공하고 스트레스를 낮춰주지만 주로 미술관에 직접 찾아가야 볼 수 있다. 회사에서 볼 수는 없을까?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는 이러한 전시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주는 멋진 예술작품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예보의 공간들을 환하게 밝혀주는 예보 내 명작들, 함께 둘러보자.

예술작품이 회사에 주는 효과

2021년 Art Basel과 UBS 글로벌 아트 마켓 리포트에 따르면 국제 미술품 시장의 규모는 80조원 대를 넘어섰다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 미술품 시장도 2022년 1조 377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2021년에 비하면 무려 37%나 성장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미술품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먼저, 미술품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작품을 통해 공간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 또한, 인테리어의 관점에서도 공간의 결점을 가리고 보완하여 사무실과 같은 공간에서도 마치 갤러리처럼 심적·미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업무 효율이 향상되는 효과도 있다.



예술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예보 본사 곳곳의 공간들

주요 작품 설명



1 黄河之水天上来 (15층 중회의실1 전시)

| 1 | 黄河之水天上来

작품 설명 중국의 여류 화가 장샤오란(張少蘭)의 작품으로, 그림 속의 폭포는 황하(黃河)의 후커우 폭포이다. 폭포의 모습이 마치 거대한 주전자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모습 같다고 하여 '주전자의 주둥이'라는 뜻의 후커우(壺口)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들릴 정도로 폭포 소리가 웅장하며, 겨울에는 폭포가 얼어붙어 절경을 이루고 봄에는 얼음이 녹아 물의 양이 늘어나면서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켜 장관을 연출하기도 한다. 후커우 폭포는 규모로는 중국에서 황귀수(黃果樹) 폭포 다음으로 큰 폭포이다. 하지만 중국인들이 제일로 여기는 것은 후커우 폭포라고 한다. 후커우 폭포에는 멈출 줄 모르는 중국의 꿈이 서려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 2 | 中國龍

작품 설명 장샤오란의 또 다른 작품으로, 민물새우와 연(蓮), 그리고 연꽃을 함께 그린 작품이다. 중국은 양쯔강 등 폭이 넓고 경사가 완만한 하천들이 많아 일찍부터 사람들이 강가에 터전을 잡고 생활하였고, 이에 따라 강 속 생물들이 자주 그림의 소재가 되었다고 한다. 작품 속 새우를 보면 갑옷 같은 껍질을 두르고 있으면서도 굴신(屈伸:몸을 구부림)이 자유로워 꼼지락거리는 동작이 순조롭게 느껴지는데, 이는 '매사가 순조롭기를 바라는 마음'을 강물을 자유로이 유영하는 새우의 몸짓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연꽃은 더러운 물속에서 자라나 깨끗한 꽃을 피우는 식물로, 불교에서는 청정함 또는 극락세계를 상징하기도 하고, 민간에서는 다산의 상징이라 하여 여성의 옷에 연꽃무늬를 새겨 넣기도 하였다. 또한, 연꽃이 시든 후 영그는 씨앗을 연과(蓮果)라고 하는데, 발음이 같다는 점에서 '과거에 연달아 합격하다(連果)'는 뜻으로 쓰기도 하였다.

| 3 | 고뇌하는 인간

작품 설명 국내에서 판화를 전공하고 일본에서 예술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영진 작가의 동판화 작품으로 잉크레이팅과 에칭 기법을 활용하였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지만 트럼펫 연주를 하며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소망을 해학적으로 표현하였다.



2 中國龍 (지하층 구내식당 앞 전시)



3 고뇌하는 인간 (15층 스튜디오 전시)

렌탈 서비스, 공간을 아름답게 연출하는 가장 쉬운 법

| 1 | 아트스퀘어(Art-Square)

백남준, 김환기 등 국내 거장들의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법원 등록 공식 미술품 감정위원이자 30년차 경력의 전문가가 전시공간에 어울리는 작품을 직접 추천·대여·설치까지 해준다.

| 2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Art Bank)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한 4,200여점의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다. 주로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 대여·전시하며 미술문화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공간을 격조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준 작품들은 임직원이 기증한 작품들 이외에도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미술품 렌탈 서비스'를 통해 대여한 것들도 있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자.



신들의 섬, 자카르타는 어떤 곳일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및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소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개수의 섬으로 구성된 나라 인도네시아. 섬의 숫자만큼이나 아름다운 문화와 자연을 가진 이곳에 오면 반가운 기관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가 있다. 지난 2022년 4월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에 개소한 이곳은 아세안과 금융 부문에 있어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보자.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쇼핑의 메카, 자카르타

적도에 가까운 열대 기후로 일년 내내 덥고 습한 날씨의 자카르타. 이곳은 인도네시아의 수도로 문화와 역사, 음식 등을 즐길 수 있는 쇼핑의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쇼핑몰이 상주해 있다. 대형 쇼핑몰에서는 명품 브랜드부터 중저가 브랜드까지 구매할 수 있고, 현지 특산물도 저렴한 가격으로 득템할 수 있다. 적어도 한 곳 정도는 시간을 내어 가보길 권한다.



스나만 시티몰



코타투아 파타힐라 광장

식민 지배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광장

자카르타는 우리와 비슷한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다. 바로 네덜란드에 식민 지배를 받았던 역사로, 그 흔적이 아직도 코타투아(Kota Tua) 파타힐라 광장에 남아 있다. 이곳은 옛 식민지 시절 네덜란드 정부 청사가 있던 곳으로, 지금은 식민지 시대를 보여주는 박물관이 되었다. 발걸음을 남쪽으로 향하게 되면, 모나스 기념탑을 만나게 된다.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높이 132m의 탑이다. 전망대가 함께 있어 자카르타의 전경을 감상하기 좋지만, 더위를 피하고 싶다면 오후 3시 이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스릴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여행지

자카르타 근교 여행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번에는 대자연을 보러가는 것을 추천한다. 자카르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화산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이다. 뒤집어진 배라는 뜻을 가진 ‘땅꾸뽀 뿌라후’는 분화구에서 아직도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활화산으로 멋진 뷰를 선사하는 여행명소이다.

여행코스로는 화산을 둘러보고 근처에서 온천욕을 한 후 간식으로 유황으로 익힌 계란을 먹고, 그림 같은 호숫가 방갈로로 이동하여 푸짐하게 차려진 순다식 전통 음식을 즐기는 일정을 추천한다.



땅꾸뽀 뿌라후 화산

한국 금융회사들의 아세안 진출 거점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동남아 10개국 연합체이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사무국을 둔 국제기구로, 한국은 회원국은 아니지만 대화상대국으로 재외공관인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를 운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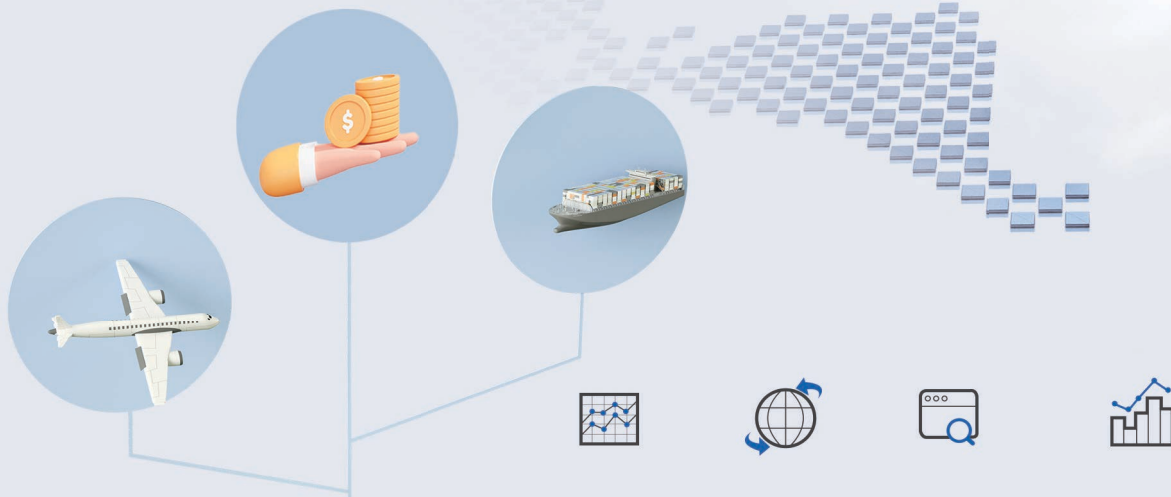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와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가 입주해 있는 센트럴 스나얀 2 빌딩

최근 10년간 우리 금융권 신규 해외점포 115개 중 93개를 아세안 국가가 차지할 만큼 한국 금융회사의 아세안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고 한-아세안 국가 간 금융협력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민간 금융지주회사 등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아세안 현지 진출 지원을 위한 기구 설치 요청이 있었고, 2019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아세안금융협력센터를 설치하기로 아세안 정상들 간 합의를 하였다. 이후 인력 선발 및 파견(2021년 8월), 사무공간 공사(2022년 1월) 등 준비 과정을 거쳐 2022년 4월 13일 센터가 주아세안대표부 산하에 공식 개소하였다. 현재 센터에는 금융위원회, 외교부, 기획재정부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과 예금보험공사, 금융결제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금융 공공기관 직무파견자 및 선임연구원 등 총 9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아세안 회원국 및 아세안 사무국 대상 다자금융협력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센터의 주요 업무는 금융통합, 금융포용, 금융안정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아세안의 금융발전을 지원하는 업무와 우리 금융회사의 아세안 진출을 지원하는 업무로 구분되며, 공사 파견직원은 △예보제도 운영경험 전수 △한국계 금융사의 애로사항 해소 지원 △아세안 금융인력 양성 △한국계 은행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아세안협력기금을 활용하여 한국의 예보제도 및 금융회사 정리 경험을 공유하는 ‘아세안 금융복원력 제고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戰時 우크라이나 예금보험기구(DGF)의 분투기

2023년 9월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IADI 연차총회에 참석한
공사 국제협력실 직원들은 지금 한창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예금보험기구(Deposit Guarantee Fund, 이하 'DGF')의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 이들의 상황을 좀 더 알아보고자
우크라이나 예보 직원과 직접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입수한 자료들을
토대로 이 기사를 작성하였다.



방공호에서 진행된 DGF 임원 회의

戰時에도 은행시스템 안정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우크라이나예금보험기구
(Deposit Guarantee Fund)

- 설립 1998년
- 직원 수 332명
- 부보금융회사 67개 은행
- 기관형태 Loss-minimizer
- 보호한도 20만 UAH(약 750만원)→전액보호 상향 中('22.4월~)
- 공사-DGF 간 상호협력을 위한 MOU 체결('12.11월~)

2022년 2월 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지 생존조차 불확실한 상황,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 집을 떠나야 하는 현실에서 금융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쉽게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크라이나의 은행 시스템은 현재 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금융안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예금보험기구(Deposit Guarantee Fund, 이하 'DGF')의 업무도 이번 전쟁이 시작된 이래 단 하루도 중단된 적이 없었다.



스빗라나 레크루트 DGF 사장

“예금자들의 권리는
전쟁 중에도 지켜져야 합니다.”
DGF의 사장 스빗라나 레크루트는 전쟁 상황에서도
예금보험기구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예금자들의 권리는 전쟁 중에도 지켜져야 합니다.”

DGF의 사장 스빗라나 레크루트는 전쟁 상황에서도 예금보험기구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우크라이나의 예금 규모는 오히려 전년에 비해 55.6% 증가하였다.

전쟁 중에도 지급된 예금보험금

2022년 2월 계엄령이 선포된 후, 우크라이나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Ukraine)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영업 중인 러시아 은행인 “Prominvestbank”와 “IRBank”의 영업 인가를 취소했다. 그리고 해당 은행이 보유한 약 170억 UAH(6,400억여 원)의 자산을 국유화하였다. DGF는 위 은행의 14만 7천여 명의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내 은행 네 곳이 연이어 문을 닫았다. 사유는 전쟁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 자본적정성 기준 미달 및 자금세탁과 대테러 자금 조달 관련 규정 위반 등이다. 이에 DGF는 전시라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2023년 3월까지 예금자들에게 총 76억 UAH(2,840억여 원)를 예금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전쟁 기간 중에는 예금보호한도에도 변화가 있었다. 2022년 4월, 러시아군이 키이우 점령에 실패하고 주 전선이 남부와 동부 쪽으로 이동하자, 우크라이나 의회는 20만 UAH(747만여 원)의 기존 보호한도를 '전액'으로 상향하였다. 전액보호는 향후 전쟁이 종료되고 계엄령이 해제되면 3개월 뒤 부분보호로 복귀될 예정이며, 계엄령 해제 후의 보호한도는 기존 보호한도의 3배인 60만 UAH(2,242만여 원)가 될 예정이다.

DGF, 유일무이한 전쟁 중인 국가의 예금보험기구

DGF는 전쟁이라는 예측할 수 없는 큰 충격에도
예금보험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금 확충 및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먼저, 예금보험기금의 목표 적립률을 보호예금의 2.5%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목표적립률(2%~2.5%)보다 높은 수치이다. 한편, 은행이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리·감독을
위한 현장검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다. 또한, 8백만
명이 우크라이나를 떠나고 6백만 명이 고향을 떠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예금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금의 원격
지급을 실시하였다.

전쟁이 발발하자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DGF로 전화가
쏟아졌다. 내 예금이 안전한지를 묻는 전화가 약 6만
통에 달했고, 전화를 받는 직원들은 때때로 절망에 빠진
예금자들을 위해 따뜻한 위로를 건넬 필요도 있었다.
전쟁으로 인해 목숨뿐만 아니라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DGF는 지난해 220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소셜
미디어에 올린 콘텐츠의 조회수는 약 1,000만 회에 달했다.
예금보험기구에서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다면 최전선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보도로 금융 이슈가 덮여버리기
쉬웠기 때문에, DGF는 대중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참화(慘禍) 속의 예보 직원들

우크라이나 예보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위치하고
있어 직원들 대부분은 키이우 또는 인근 지역에 살고 있다.
전쟁 초기 키이우 점령을 위해 러시아 군이 공격해오자
이들 직원들은 전선에 의해 차단되어 집에 갇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DGF의 경영진과 핵심 인력
50명은 예금보험기능의 유지를 위해 보안상 밝히기 어려운
지역으로 이동하여 업무를 계속해 나갔다. 그리고 러시아가
키이우 점령을 포기하고 인근 지역으로 철수하기 시작한
2022년 여름에 그들은 다시 수도로 복귀하였다.

수도 복귀 이후에도 공습은 계속되었는데, 이때 DGF
직원들은 지하 방공호로 이동하여 업무를 이어 나갔다.
미사일과 드론에 의한 공습에도 불구하고 지하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깨끗하게 해나갔던 것이다.



공습 중 방공호에서 진행된
DGF 직원 회의

전쟁의 민낯



DGF 창립 25주년 기념 행사

DGF도 전쟁의 비극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목숨을 잃은 직원, 부모·형제를 잃은 직원들이 부지기수였다. 그러나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도 DGF 직원들은 곳곳하게 제자리를 지켰다.

2023년은 DGF 창립 25주년이 되는 해였다. 평소 같으면 화려한 행사와 기념식이 치러졌겠지만, 올해는 우크라이나 군대를 위한 의료용품, 핫팩, 램프와 침낭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줄 아이들의 그림 등 위문품을 준비해 전선에 보내는 것으로 대체했다.

DGF 직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희망과 절망 사이를 시계추처럼 오가는 감정이었다. 한 DGF 직원은 이런 말을 했다.

“내일이면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지만, 다음날 마주하는 것은 드론의 공습이라는 현실이었습니다. 같이 웃고 떠들고 일상을 공유하던 주변 사람들이 희생되는 현실에서 우리는 1년 반 동안 살아왔습니다.”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DGF 직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평소처럼 일하고 있다. 이들이 보여준 모습은 예금보험기구가 전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차등보험료율제 깊이 살펴보기

- 대학생 참여 기고



시작하며

우리가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주제로 금번 연구를 하게 된 것은 예금보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교수님의 영향이 컸습니다. 조원들의 만장일치로 예금보험제도를 연구 주제로 선택했고, 연구를 위한 세부 주제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예금보험제도는 TV 등 보도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금융회사가 망하더라도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해 줍니다.’였습니다. 일견 알기 쉬운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한꺼풀 벗겨내니 예금보험제도의 영역은 생각보다 넓고 깊었습니다. 금융회사가 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감시하는 업무부터 부실해진 금융회사를 정리하고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는 업무까지 금융회사의 일생과 모두 연관되어 있어 세부 주제를 확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최근 언론에서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 기사의 비중이 커지는 점에 착안해서 금융안정에 기여하면서도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시장 친화적인 차등보험료율제도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차등보험료율 제도란?



차등보험료율제도는 '09년도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14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개별 금융회사의 경영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할인·할증하는 제도로써, 보험료 부과에 공정성을 높이고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경영위험을 줄이는 건전 경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의 주제는 이러한 제도 도입 취지가 적정하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차등제도가 금융회사의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억제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선행연구들은 일반은행과 저축은행으로 분석대상이 한정되거나, 법상 최대 차등폭(±10%)에 도달하기 이전의 자료만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5개 업권(은행, 저축은행, 금투, 생명보험, 손해보험) 전부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19년도 이후의 자료도 활용하여 이전 연구를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연도별 보험료율 차등폭 추이

구 분	'14~'15년	'16년	'17~'18년	'19~'20년	'21년~
최대 할인폭	△5%	△5%	△5%	△7%	△10%
최대 할증폭	+1%	+2.5%	+5%	+7%	+10%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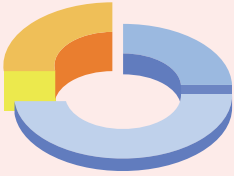
금융회사의 위험추구성향을 측정하는 지표로 Z-Score를 사용했고, 차등제도 도입 여부를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하여 도입 이전('12년도 이전)까지는 0의 값을, 도입 이후('13년도 이후)는 1의 값을 부여했습니다.

차등제도 도입의 효과 분석 결과

구 분	업 권	독립변수(차등제도 도입 여부)	
		회귀계수	p-value
종속변수 (위험추구성향: Z-Score)	일반은행	79.29	2.34e-16
	저축은행	10.78	2e-16
	생명보험사	0.28	4.27e-2
	손해보험사	2.60	3.45e-8
	금융투자회사	12.64	9.26e-13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업권에서 차등제도 도입 이후에 Z-Score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차등제도가 모든 업권에서 금융회사의 위험추구성향을 완화시켰음을 의미합니다. 주목할만한 것은 자산규모가 큰 일반은행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졌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연구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제도 도입 전 Z-Score를 상위 그룹, 중·하위 그룹으로 분류하고 차등제도 도입 이후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했습니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업권에서 상위그룹은 유의미한 개선을 보인 반면, 중·하위 그룹은 개선효과가 유의미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Z-Score* 그룹별 제도도입 효과

업 권	Z-Score	독립변수(차등제도 도입 여부)	
		회귀계수	p-value
일반은행	상위	18.30	0.00382
	중·하위	6.07	0.36398
저축은행	상위	13.55	3.88e-15
	중·하위	2.81	0.103
생명보험사	상위	1.12	0.00454
	중·하위	-0.34	0.32869
손해보험사	상위	7.26	7.82e-05
	중·하위	12.95	2.38e-10
금융투자회사	상위	210.15	2e-16
	중·하위	-32.78	0.0982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았습니다. 먼저, 자산규모가 클수록 납부 보험료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보험료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하위 집단의 경우 소극적 경영에 따른 경영악화가 예금보험료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차등제도는 전반적으로 금융회사의 위험추구성향을 완화하지만 그 효과는 자산규모 등에 따라 업권 내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 Z-Score는 최근 5년간 ROA의 변동을 분모로 하고, ROA와 자기자본비율의 합을 분자로 한다. 여기서 분모의 ROA 변동은 '수익충격'을 대리하며, Z-Score는 총격 1단위당 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버퍼(분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Z-Score는 금융회사가 충격흡수 여력을 얼마나 확보하려고 하는지, 즉 위험회피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다.

마치며...

아직은 배워야 할 것이 많은 학생이기에 본 연구가 부족한 점이 많았겠지만, 그래도 차등보험료율제도라는 특정한 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저희 힘으로 분석을 했다는 점에서 힘들지만 즐거웠던 작업이었습니다. 더구나 분석 결과가 차등제도의 유효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컸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KDIC의 이웃을 소개합니다

- 유관기관 콘텐츠 교류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예금자 등을 보호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는 경제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있다. 여기에서는 그 중 하나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전하게 무역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한국무역보험 공사 소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우리나라 수출·수입보험 제도를 전담 운영하는 정부출연기관으로서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을 위해 다양한 보험·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기능



1 무역보험·신용보증 종목 운영

상품 및 자본재 수출, 수입, 해외건설·투자, 환위험관리, 서비스 수출,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 담보

2 신용정보 서비스 및 해외채권 회수지원 서비스

국외기업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관리 등의 신용정보 서비스와 해외 미수채권에 대한 회수 대행 등 채권추심 서비스 제공

3 무역보험기금의 운용

정부가 출연한 무역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무역보험 사업기반 확보

4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안정적인 무역과 대외투자를 견인,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주요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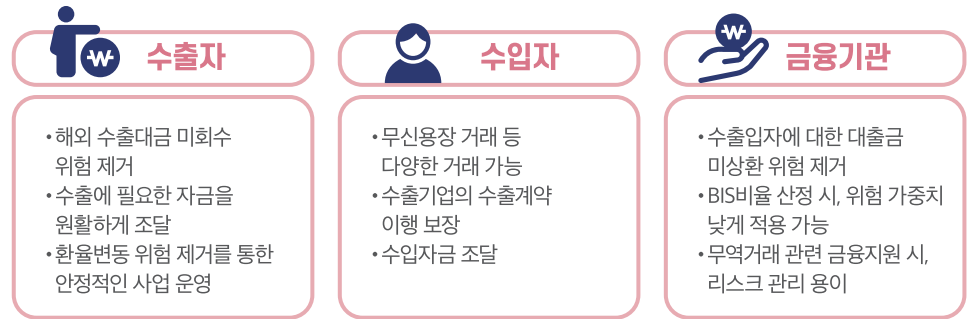
'92.7월 무역보험 전담기관으로 설립, '10.7월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로 재출범



무역보험제도 소개

무역보험은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출하였으나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수출입 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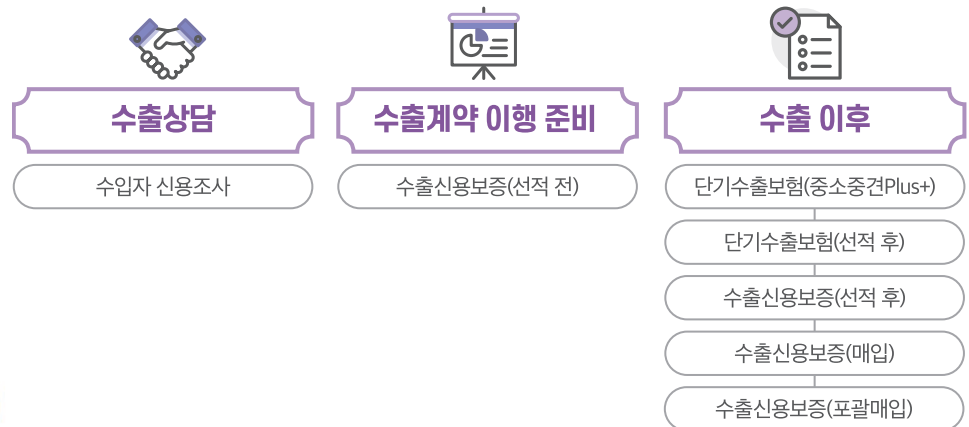
무역보험 활용 시 장점



수출단계별 무역보험제도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수입자 신용조사부터 수출대금 회수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구분	지원 요구사항	지원 제도
수출상당 후 계약단계	· 불안한 수입국 사정, 수입자 신용문제	· 수입자 신용조사
수출계약 이행 준비 단계	· 수출계약 체결 후 원자재, 완제품 및 수출물품 생산 등을 위한 자금조달 문제 ·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손 문제	· 수출신용보증(선적 전) · 수출신용보증(온라인 다이렉트 보증) · 환변동보험
수출 이후 단계	· 수출 이후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문제	· 단기수출보험(선적 후) ·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 단기수출보험(다이렉트)
	· 외상 거래 시, 대금결제기간 동안의 자금부족 등 유동성 문제	· 수출신용보증(선적 후) · 수출신용보증(매입) ·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 계약시점과 결제시점의 환율 차이로 인한 환차손 문제	· 환변동보험



아삭한 달콤함 '탕후루' 경험하는 디저트의 시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때아닌 탕후루(糖葫蘆) 논란이 일었다. 탕후루가 청소년의 비만 원인으로 지목되며 국민의 당 과다 섭취 문제가 대두된 것. 마라탕을 먹고 탕후루로 완성한다는 '마라탕후루'라는 말이 신조어로 떠오른 지금, 대한민국의 입맛을 사로잡은 탕후루의 모든 것을 알아봤다.

탕후루, 어디까지 먹어봤니

최근 SNS를 중심으로 MZ세대의 탕후루 놀이가 인기다. 호떡의 새로운 이름은 '리버스 탕후루'. 탕후루가 뜨면서 탕후루와 비슷한 맛의 달달한 음식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놀이에서 유래했다. 과일 표면에 설탕 옷을 입힌 탕후루와 반대로 속에 설탕 소스가 들어가는 '뒤집힌 탕후루', 즉 리버스(Reverse) 탕후루라는 의미를 담았다. 이제 구운 고구마를 꿀에 절인 고구마 맛탕은 '고구마 탕후루', 멸치와 아몬드를 물엿에 졸인 멸치볶음은 '멸치 탕후루'라는 우스갯소리도 들린다.

그야말로 탕후루가 2023년 대한민국을 휩쓸었다. 한 탕후루 프랜차이즈 매장은 올해 들어서 400개 이상 늘었고, 지난 6개월 사이 특허청에 등록된 신규 탕후루 상표만 150개가 넘는다. 디저트 하나도 끝을 보고야 마는 한국인은 탕후루를 넣은 빙수와 음료, 마카롱 등을 내놓기 시작했고, 탕후루

느낌을 구현한 립 제품과 네일 메이크업 제품도 출시됐다. 립스틱의 색조 이름에도 탕후루가 등장했으니, 이 유행이 어디까지 갈지 사뭇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탕후루에 대한 국립국어원의 정확한 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순화해서 표현하면 '과일 사탕'으로 부를 수 있다. 기다란 꼬치에 딸기나 포도 등 과일을 꿰어 설탕 녹인 엿물을 입혀 굳혀서 먹는다. 씹으면 딱딱한 설탕 표면이 깨지면서 달달한 맛이 나고, 곧바로 과일의 새콤달콤한즙이 혀 끝을 사로잡는다. 진한 단맛 뒤에 이어지는 상큼한 반전이 탕후루의 매력. 겨울이 다가오면서 꿀을 통째로 쥔 굴 탕후루도 인기 메뉴로 떠오르고 있다.

탕후루(糖葫蘆)의 탕(糖)은 딱딱하게 굳은 설탕, 후루(葫蘆)는 표주박을 뜻한다. 과일을 꼬치에 꿰 모습에 움푹 파인 표주박을 닮아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이 있다. 또 다른 설에 의하면 표주박 모양의 도자기 그릇에 설탕을 담아 끓인 후 과일을 찍어 먹은 데에서 비롯됐다는 설도 있다.

보기 좋은 디저트가 먹기도 좋다

사실 탕후루가 우리에게 낯선 디저트는 아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 인사동이나 명동 등 번화가에서 이미 스치듯 본 사람도 많다. 대체 어떻게 탕후루는 이토록 뜨거운 열풍을



불러온 걸까? 먹거리를 입 뿐만아니라 눈과 귀로도 두루 맛보는 현대인의 특성 때문이다. 폐업 위기에 놓인 카페를 탈바꿈시켜 주는 TV 예능 <동네멋집>에서 솔루션을 맡은 한 전문가는 카페의 성공과 실패를 '컨셉트'가 좌우한다고 강조한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을 정도로 독특한 개성과 눈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는지 여부가 가게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탕후루가 어린이를 비롯해 젊은 세대를 사로잡은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색색의 영롱한 과일 구슬 빛깔이었다. 유튜브든 인스타그램이든 일단 아이টে이 '촬영 각'이 잡히려면 눈길을 사로잡는 색감이 기본이다.

'촬영각'이 잡히고 난 후에는 '소리'가 탕후루 마케팅을 주도했다. 소위 ASMR 먹방 유튜버들이 마이크에 대고 탕후루를 씹을 때마다 딱딱하게 굳은 설탕 코팅막이 청량하게 깨지는 소리, 촉촉한 과육을 이로 으깨는 소리와 '맛 스파이크'를 느낄 때 나오는 특유의 달콤한 표정까지. 보는 이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영상은 1분 이내의 쇼츠(Shorts)를 타고 급속히 퍼져 나갔다.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해 극적으로 연출된 탕후루의 단맛을 간접적으로 경험한다. 디지털로 감각된 미각 경험을 현실로 소환하고 싶은 욕망은 어쩌면 당연한 순서. 게다가 탕후루는 똥카롱부터 소금빵, 약과, 탕후루로 이어지는 SNS 피드의 강력한 주인공으로 확산되며 사람들을 끌어당겼다. 탕후루가 단순히 맛 뿐만아니라 찍고 공유할 수 있는 경험까지 제공한다는 의미다. 게다가 설탕 코팅을 입힌다는 기본적인 전제 외에는 그 안에 무엇이든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탕후루를 놀이화하는데 한몫 했다. 사람들은 SNS를 중심으로

설탕 코팅을 입힌 갖가지 탕후루를 탄생시키며 탕후루라는 콘텐츠 자체를 즐기고 있다.

악마의 음식일까? 천사의 디저트일까!

다만 이 두꺼운 설탕 코팅이 몸에 좋지 않다는 사실은 자명해 보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를 총 섭취 열량의 5%(2,000kcal 기준 25g) 미만으로 줄일 것을 권고한다. 식약처 조사에 의하면 탕후루의 당류 함량은 대략 14~27g. 탕후루 한두 개를 먹으면 하루 당류 권장 섭취량을 넘어서게 되는 셈이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에서 판매하는 스무디나 에이드에 탕후루의 두세 배가 넘는 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커피의 평균 당류도 탕후루보다 많은 37g이며, 콜라 한 캔의 당류도 26g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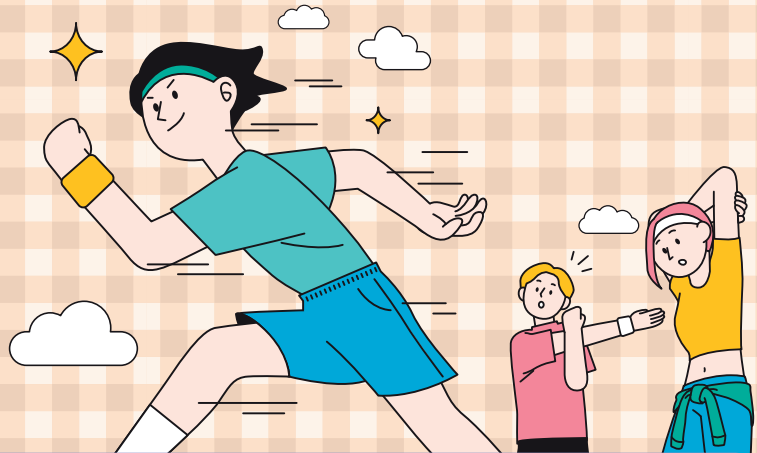
무엇이든 '과하면 독'이라는 것이 결론이다. 의사들은 무엇이든 꾸준히 먹으면 비만과 당뇨,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당 수치보다 무서운 건 치아에 딱딱하게 달라붙는 설탕 껍질이다. 이 설탕 껍질은 딱딱하고 끈적한 특성 때문에 치아에 바짝 달라붙어 잘 떨어지지 않는다. 특히 탕후루가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만큼 충치 예방이나 올바른 당 섭취 습관을 위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게다가 뽕족한 탕후루 꼬치가 환경이나 거리 미관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분간 탕후루의 인기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하면 독이지만, 딱딱한 일상에서 달콤한 디저트만큼 힘이 되는 위로가 어디 있을까? 과유불급의 진리를 기억하며 적당히 즐긴다면, 이 달콤하고 아삭한 디저트가 주는 기쁨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직장인을 위한 365 건강 스트레칭

스트레칭 방법 소개

장시간 오래 컴퓨터 앞에 앉아 업무를 하다 보면
어깨, 허리, 목 등등 어디 한 곳은 빠근하기 마련이다.
그건 근육에 피로가 쌓였다는 증거!
이럴 때는 스트레칭으로 간단하게 몸을 풀어보자.
평소 아팠던 부분도 금새 시원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스트레칭이란?

영어 단어 스트레칭(Stretching)은 '늘이다, 펴다, 뻗다' 등을 뜻하는 단어다. 스트레칭은 특정 근육의 관절을 의도적으로 구부리거나 늘려 긴장을 풀거나 이완시키고 근육의 회복 탄력성을 향상시키는 운동으로, 수 세기 전부터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운동치료 및 물리치료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측면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몸에 쌓인 피로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몸의 컨디션을 좋게 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스트레칭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원에서 강습을 받는 직장인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스트레칭의 효과?

1 근육의 긴장을 완화

스트레칭은 근육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수축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2 신체의 혈액순환 개선

스트레칭은 건강한 몸에 필수적인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고 뇌에 산소를 보내 정신을 맑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3 균형 감각 향상

스트레칭을 해주면 뭉친 근육들이 완화되어 몸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4 스트레스 해소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등 심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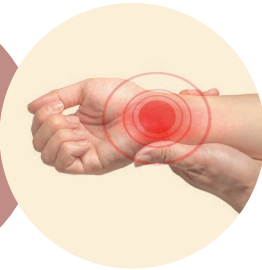
다리 스트레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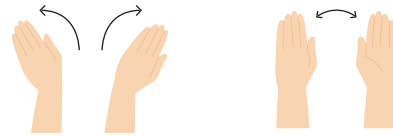
의자에 허리를 편 상태로 앉은 후, 다리를 쭉 펴준다. 이때, 발끝은 하늘을 향하도록 하며 5초간 유지한 뒤 발을 몸쪽으로 당겨준다. (운동횟수 : 양쪽 번갈아 가며 3회)



손목 관절 스트레칭



손목을 안쪽에서 바깥 쪽으로 천천히 돌려준다. 그 다음 손목을 반대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도 천천히 돌린다. (운동횟수 : 양쪽 번갈아 가며 5회)



허리 스트레칭



오른쪽으로 몸통을 돌려 의자 등받이를 잡는다. 10초간 이 상태를 유지한 후, 반대 쪽도 동일하게 스트레칭한다. (운동횟수 : 양쪽 번갈아 가며 3~5회)



어깨 스트레칭



양손을 머리 뒤로 깎지를 낀다. 팔을 최대한 옆으로 벌린다. 가슴을 활짝 편 상태에서 약 10초 정도 정지한다. (운동횟수 : 양쪽 번갈아 가며 3회)



목 스트레칭



의자에 앉아 다리를 자연스럽게 어깨 너비로 벌린다. 목을 어깨 쪽으로 굽히고, 굽힌 쪽 손으로 반대편 귀를 천천히 잡아 당긴다. 머리를 당길 때 반대편 어깨가 함께 올라가지 않도록 의식하면서 스트레칭 한다. (운동횟수 : 양쪽 번갈아 가며 3회)



'일잘러'는 습관으로 승부한다

평온한 태도로 주어진 일을 물 흐르듯 잘해내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일잘러(일 잘하는 사람)라고 부른다. 이들의 몸에 밴 습관은 일을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든다. 시간이나 일에 끌려 다니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어 일을 이끄는 소위 '일잘러'들의 습관에 대해 알아본다.



AM 09:00 집중력을 높여주는 루틴 만들기

일을 하기 전 뉴스를 보느라 오전 시간을 날리는 일이 많다면, 업무에 몰입하는 루틴이 필요하다. 할 일이 많아 일에 바로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날 할 일을 목록으로 작성해 보자. 오늘 안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 며칠 여유가 있는 일, 꼭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점검해 볼 일을 차례로 정리해보고 일의 중요도에 따라 밑줄을 그어 하나씩 처리해 나간다. 퇴근 전에는 다음날로 넘길 일을 정리해두고 다음날 출근 후에

해야 할 일을 다시 상기한다. 출근 후 10분은 뉴스레터를 읽거나 메일을 정리한 후 업무를 시작하는 등 이러한 루틴을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업무 몰입도를 올릴 수 있다.



AM 10:30 훌륭한 보고에 빠지지 않는 네 가지 질문

오전 업무 회의를 할 때나 보고를 할 때 빠지지 않는 기본 질문들이 있다. 보고를 할 때는 아래의 네 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해 볼 것.

- Why** 그게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왜 해야 하는가? 무슨 의미가 있나?
- What**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떻게 논리적으로 정리할 건가? 근거는?
- How** 그래서 어떻게 적용할 건가? 결론이
뭔가? 성과는 낼 수 있나?
- If** 만약 잘 안되면 우리가 얻을 리스크는 뭔가? 잘 되면
얻는 성과는 무엇인가? 더 색다른 방법은 없나?

훌륭한 보고서와 기획안은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두 담고 있다.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라 해도 ‘그래서 그걸 왜 하는데?’라는 질문에는 말문이 턱 막힐지도 모른다. 배경과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 없다면, 그 기획안 역시 통과하기 어렵다. 일머리는 ‘통합적 사고’에서 나온다. 내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보고받는 사람의 사고 흐름을 읽으려는 습관이 필요하다.



PM 12:00

‘열린 질문’이 우호적인 관계를 만든다

인사와 평판이 중요한 회사에서는 때로는 사소한 스몰토크가 나의 이미지를 결정하기도 한다. 평범한 대화에서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언어 습관을 사용하자. 일단, 공적인 관계에서 ‘부정어’는 최대한 줄일 것. 험담에 끼기도, 빠질 수도 없다면 최소한 말을 엮지는 않는다. 스몰토크를 나누고 싶다면 대답이 ‘네’ 혹은 ‘아니요’로 끝나는 닫힌 질문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대답이 나오고 대화가 이어질 수 있는 열린 질문이 좋다. 예를 들어 ‘영화 자주 보세요?’ 보다는 ‘최근에 본 영화가 있나요?’와 같이 대답의 선택지가 많은 질문이 좋은 대화를 유도한다.



PM 03:30

멀리 조사하는 새가 인정을 얻는다

상사가 자료 조사를 지시했을 때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어줄 팩트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어떤 의사 결정을 위한 것인지 ‘목적’을 반드시 파악하는 습관을 갖자. 자료 조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업무를 지시한 상사에게 물어봐도 좋다. 자료조사의 목적과 기준을 정했다면, 다음 순서는 필요한 데이터를 찾는 것. ‘구글링’에만 의존한다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자료의 신뢰도도 부족할 수 있다. 데이터 · 리포트를 제공하는 사이트 등을 활용하면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자료 조사를 많이 하는 직군이라면 활용하기 좋은 사이트를 소개한다.

국가통계 포털 | 공공데이터 포털 | 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 KOTRA 해외시장뉴스
DART 전자공시시스템 | 한국갤러리포트
썬트렌드 | 구글 트렌드 | 네이버 데이터랩



PM 05:00

빠른 피드백은 일잘러의 기본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기본자세는 빠른 회신 습관이다. 빠른 확인과 회신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일의 진전이 빨라지고 상호협력도 부드럽게 잘 이뤄지기 때문이다. 간단한 업무 요청에도 긍정인지 부정인지 감감 무소식인 동료를 떠올려보자. 반면 빠르고 명쾌하게 회신하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신뢰가 가는 인상을 만든다. 신속하게 회신하는 습관을 들일수록 머릿속에서도 업무에 대한 판단이 점점 빨라진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빠른 피드백 습관을 갖자. 상사의 요청에는 먼저 요청 내용을 이해한 뒤 ‘언제까지’ 회신할지 정리해 공유한다. 사내 메일에는 되도록 명확하고 간결한 용어를 사용할 것. 일의 순서나 히스토리를 남겨야 할 경우, 시간의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기록되는 메일 및 메신저를 활용하면 좋다. 특히 요청을 주고받는 일이 반복되는 업무나 수정 파일이 누적해서 쌓이는 경우라면,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편하다.

최적의 소통 수단 찾기

함의 혹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해야 한다면, 미팅
새로운 일을 요청할 때는, 선 메시지 후 미팅
히스토리 기록이 필요하다면, 메일 혹은 메시지

바야흐로 '유튜브 전성시대'다.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의 60%가 유튜브를 통해 소통하거나 정보를 검색한다는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제는 유튜브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는 말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진짜 셀 수도 없이 많은 영상이 유튜브를 떠돌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린 어떤 콘텐츠를 시청해야 할까? 내 인생에 도움을 줄 유튜브 채널들, 한번 찾아보자.



재밋고 똑똑한 당신을 위한 영상 모음. zip 키워드별로 알아두면 좋을 유튜브 채널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수업,
부티플 - 부의 배수를 높여라
구독자 33.7만명, 동영상 1.2천여 개



돈은 벌고 있는데 어딘지 모르게 마음 한 켠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부티플 - 부의 배수를 높여라'는 재테크, 부업, 창업 등의 소비와 저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제 채널이다. 그중에서 '김경필의 돈쥬남'은 재테크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재테크에 대한 조언을 들려주는 형식으로 뼈 때리는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재테크 플랜을 세워야 하거나 자산 설계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지치고 힘든 마음을 치유하는 말 한마디,
글토크
구독자 20.5만명, 동영상 221여 개



살다 보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나만 이런 힘들음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누구에게나 이런 '순간'이 온다. 그럴 때 보면 좋은 채널로 유튜버 '글토크'는 살면서 힘이 될 이야기, 조언들을 일목요연하게 이야기 한다. 이 채널을 구독하는 이유로 유튜버 글토크의 '목소리'를 꼽는 사람도 많다. 차분하고 느릿느릿한 그의 목소리는 ASMR을 따르지도 않아도 될 정도라고. 펑펑한 삶 속에서 공감과 위로를 통해 기운을 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채널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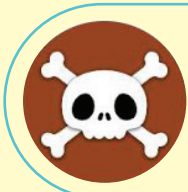
ASMR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려주며! 드림리 사운드(Dreamy Sound)

구독자 58.7만명, 동영상 173여 개



빗소리, 벽난로 장작 소리까지 세상에는 참 다양한 소리가 존재한다. 어떤 소리는 듣고 있으면 귀가 시원해지고 나른한 쾌감마저 느낄 수 있는데 특히,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다. '드림리 사운드'는 자연/생활의 연속적이고 실제적인 소리를 제공하는 ASMR 채널로, 깊은 수면이 필요한 순간 뿐만 아니라 명상, 휴식이 필요하거나 집중을 해야하는 순간에 도움을 준다. 이 채널에서 들려주는 소리를 통해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를 경험해보길 바란다.



역사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역사채널, 지식해적단

구독자 103만명, 동영상 185여 개



역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였을 정도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역사 지식'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는 역사가 재미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지식해적단'은 이러한 편견을 깨줄 유튜브 채널로 딱딱하지 않으면서도 흥미롭게 역사를 설명한다. 게다가 아무리 알기 쉽게 설명을 해도 글로만 보면 지루할 수 있는데, 지식해적단은 화면 또한 트렌디하게 편집하여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다.



건강

내 건강! 내가 지킨다! 건강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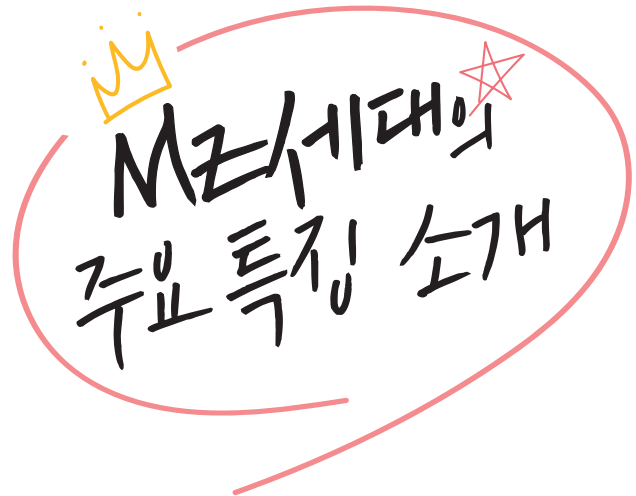
구독자 21.6만명, 동영상 69여 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당신을 위한 채널이다. '건강하우스'는 건강에 도움이 되거나 해로운 식습관 정보 등을 제공한다. 무심코 지나쳤지만, 사실은 중요했던 생활 꿀팁도 얻을 수 있다. 이 채널의 특징은 '지금 냉장고에 이 음식 있다면 당장 치우세요!!', '사과 이렇게 절대 먹지마세요!' 등 클릭해보고 싶은 자막이 적힌 섬네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출·퇴근 시간에 편하게 시청할 수 있는 콘텐츠라는 점도 이 채널의 장점이다.

AZ는 모르는 MZ세대 설명법

삶의 방식부터 가치관까지 모든 것이 다른 세대, MZ세대.
개인주의 성향에 할 말 다하는 성격으로 조직이나 사회에서 종잡을 수
없는 세대로 불리고 있지만, 내일을 이끌어갈 젊은 세대라는 것만은
변함이 없다. 지금보다 더 주목받아 마땅한 MZ세대,
그 특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젊은 듯 다른 MZ세대

MZ세대는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초중반에 태어난 밀레니엄(M) 세대와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에 출생한 Z세대를 아우르는 말이다. 따라서 MZ세대에 1980년대부터 2010년대 생까지 묶다 보니 20·30대들은 자신이 MZ세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40대들도 이런 상황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기도 한다. 이는 젊은 세대와 같은 세대로 불리는 것이 기분 나쁜 일은 아니지만, MZ세대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다양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때문일 수도 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MZ세대의 특성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사무실에서 에어팟을 끼고 근무를 하거나, 업무시간에 유튜브를 촬영하는 등 개인주의가 심하고 자기주장이 강한 모습을 보이는 MZ세대를 등장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보는 이로 하여금 “나도 저런 직원 우리 회사에서 본 적이 있다”며 공감을 얻거나, “MZ세대를 일반화하여 조롱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MZ세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크게 4가지 분야에서 살펴본 MZ세대의 모습은 이렇다.

4가지 분야에서 살펴본 MZ세대의 특징

성격

- 사회성이 낮다
- 예의를 신경 쓰지 않고 자기 권리만을 챙기려 한다
- 자기 권리를 챙기는 데 거침이 없다
- 할 말은 다 한다
- 개인주의다
- 공정을 중시한다

미디어

-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다 (디지털 네이티브)
- 숏츠나 릴스 같은 짧은 영상을 선호한다
- 직접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하기도 한다

직장

- 조용한 사직
- 저녁이 있는 삶을 선호한다
- 조직 충성도가 낮다

소비

- 가치소비를 추구한다
- 취향이 확고하다
- 작은 사치를 한다
- 중고거래 경험이 많다
- 경험을 더 중시한다
- 뉴트로를 좋아한다
- 플렉스(과소비) 경향이 있다

M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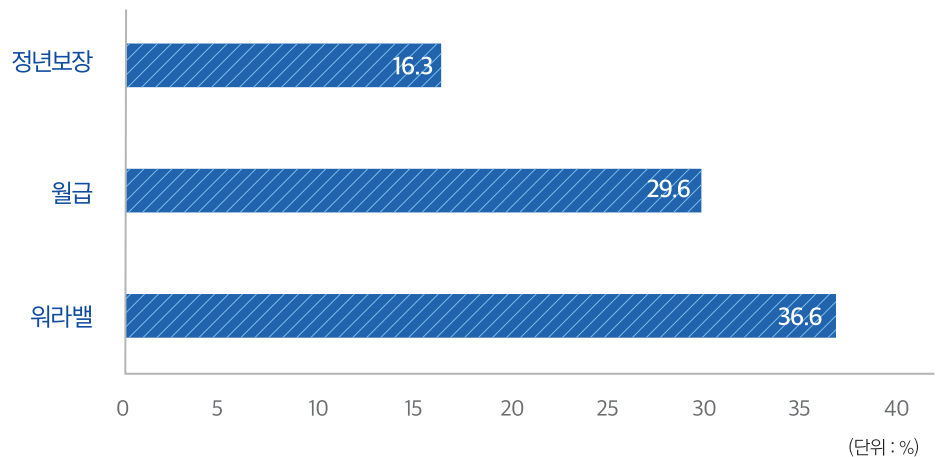
성격으로 보는 MZ세대

MZ세대는 형제가 많고 공동체 생활을 주로 했던 이전 세대와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형제가 없거나 많아야 1~2명이다 보니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며,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 표현하는 데 거침이 없다. 예의를 신경 쓰지 않으며, 사회성이 낮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직장에서 보는 MZ세대

MZ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칼퇴'는 MZ세대의 업무 스타일을 대변하는 문화이다. 이들은 업무시간이 끝나면 칼같이 퇴근한다. 이유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무 이후의 시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MZ세대가 선호하는 직장 순위



미디어로 보는 MZ세대

MZ세대는 어릴 때부터 디지털, 즉 스마트폰과 AI 등 최신 기술을 사용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이다. 디지털 기술을 일찍부터 접한 덕에 기술에 대한 경계심과 거부감이 낮으며 다른 세대보다 최신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숏폼을 선호하며 SNS 챌린지 등을 비롯해 다양한 영상들을 직접 제작하기도 한다.

소비 경향으로 살펴보는 MZ세대

MZ세대는 소비에 있어서도 이전 세대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소유보다는 공유(렌탈이나 중고시장 이용)를, 상품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 특성을 보인다. 또한,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나 특별한 메시지를 담은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표출하는 '미닝아웃' 소비를 하기도 한다. 이들 세대에는 미래보다는 현재를, 가격보다는 취향을 중시하는 성향을 가진 이들이 많아, 플렉스 문화와 명품 소비에도 다른 세대보다 익숙해 한다는 특징이 있다.

어느덧 2023년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올 2024년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김난도 교수가 이끄는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소비트렌드분석센터’가 뽑은 소비 키워드를 통해 간단히 예측해봅시다.



모르면 손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사회의 모습은?

2024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 전망 소개

1분 1초가 아까운 현대 사회, 분초 사회

소유 경제에서 경험 경제로 이동하면서 떠오른 트렌드입니다. ‘분초 사회’는 시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분초(分秒)를 다투며 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돈만큼이나 시간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소비자 행동 양상이 변화하자 ‘가성비’ 대신 ‘시성비’라는 신조어도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올라섰는데요. 가격이나 품질 같이 판매자가 제품에 매긴 가치가 아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자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기업도 ‘소비자의 시간을 얼마나 불드느냐’가 생존을 좌우한다고 하네요.

일물일가(一物一價)의 법칙이 사라지는 시대,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정해진 가격이 있다는 개념을 무너뜨리는 단어입니다. 정가나 권장소비자가격 대신 ‘최적가’라는 개념이 등장한 건데요. 이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똑같은 제품과 서비스를 두고도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다른 가격을 소비자가 지불할 의향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이는 가격을 책정하는 주체가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옮겨가고 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기업들도 이제는 가격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가격으로 기업 성장과 소비자 만족을 함께 충족시켜야 하겠네요.

실패 없는 선택을 위한 결정, 디토 소비

‘디토(Ditto)’ 소비는 1분 1초가 아까운 분초사회에서 시간을 아끼고 실패를 줄이기 위한 소비의 한 형태입니다. 선택지가 많아지면서 선택의 어려움과 함께 실패의 두려움도 증가한 영향 탓인데요. ‘나도’ 또는 ‘이하동문’을 뜻하는 디토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요즘 소비자는 특정 인물, 콘텐츠, 커머스가 내린 상품 해석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후 상품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향후 기업의 제품 또한 단순히 제품의 질이 좋다고 해서 주목받기 보다는 회사의 철학이나 관점을 담은 시그니처 상품이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 돌봄 경제

돌봄을 둘러싼 새로운 사회적, 기술적 움직임을 볼 수 있는 트렌드입니다. 지금까지 돌봄이라고 하면 주로 어린이 혹은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배려의 일환이었는데요. 앞으로는 그 의미도 달라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의 상처를 입고 정서적으로 괴로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아진 까닭인데요. 이에 따라 내년에는 ‘돌봄 경제’가 트렌드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돌봄’은 환자, 장애인 등 생활이 불편한 사람들을 챙겨주는 ‘배려 돌봄’과 신체적 불편함을 넘어 마음까지 세심하게 보듬는 ‘정서 돌봄’ 그리고 서로서로 돌보아주는 ‘관계 돌봄’으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돌봄 경제’가 활성화되어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되고, 국민의 삶의 질도 높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
맛집

함께 만드는 예보광장

예금보험공사 직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코너
‘함께 만드는 예보광장’이 맛있는 소식과 함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예금보험공사 직원들이 추천하는 카페, 맛집 6곳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2편을 엄선하여 준비했는데요.
더 배고파지기 전에 바로 확인해 봅시다.

을지로씨봉

/ 회수기획부 김시승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8

연락처 0507-1324-9430

대표 메뉴 와인&칵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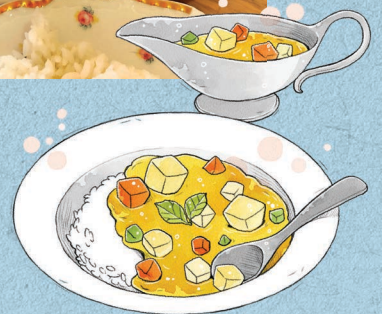
추천하는 이유

감성 가득한 공간, 가성비 와인과 안주
그리고 7080 추억에 잠시 스며들고
싶으시다면 을지로씨봉으로 초대 합니다.
너목보시즌6의 싱어송라이터가 매일
오후 8시와 10시 30분에 라이브 공연으로
찾아옵니다. 고층 빌딩으로 가득 채색되어
가는 도심에서 1차 장소로 선택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안주와 와인으로 7080
감성의 추억을 가득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도라보울

/ SIFI정리부 서혜민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5길 54

연락처 02-6949-1332

대표 메뉴 스프카레

추천하는 이유

추운 겨울,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음식이
필요할 때 도라보울을 추천드려요. 일식 스프
카레를 맛볼 수 있는 곳인데, 원하는 맵기, 고기
종류, 야채 가짓수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
취향껏 즐길 수 있답니다. 소박해 보이지만
재료 하나하나에서 사장님의 정성이 느껴지는
따뜻하고 든든한 한 끼입니다.
웨이팅이 다소 있으니, 시간 여유가 있으실 때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





카페 이드라

/ 해외재산조사부 윤성현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윤보선길 18 1층

연락처 070-4155-1004

대표 메뉴 드립커피

추천하는 이유

커피를 좋아합니다. 연초에는 유럽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기도 했습니다. 안국역에 있는 “카페 이드라”.

이드라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가까운

예쁘고 작은 섬입니다. 레몬트리 가 집집마다 있지요. 카페 이드라도 오래된 향나무가 굽어보고 있는 단아한 카페예요. 칠순에 가까워 보이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첫 인상은 강렬하신데, 말씀을 나눠보면 자상하십니다. 사장님께서 진하게 내려주시는 드립 커피 맛이 프렌차이즈와는 다른 특별함을 줍니다. 바로 앞 “서울공예박물관”을 둘러보고 오는 것도 좋겠네요.



도토리브라더스

/ 보험리스크관리부 이수안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41 1층

연락처 0507-1475-2315

대표 메뉴 대창덮밥, 치킨난반, 파스타 등

추천하는 이유

아기자기한 분위기의 식당에서 일본가정식을 먹고싶을 때 내수동 골목 산책 겸 다녀오기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창덮밥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소스가 매콤달콤해서 맛있 습니다^^ 다른 메뉴를 시키고 사이드메뉴로 미니 대창을 시키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날씨 좋은 날 일본 분위기를 느끼고 싶을 때 다녀와보세요:)





천복(天福)

/ 인사지원부 최수진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4길 27-4

연락처 02-756-8524

대표 메뉴 삼겹살

추천하는 이유

고소한 삼겹살과 향긋한 미나리의 궁합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히든 메뉴는 오징어볶음인데요, 너무 맵지도 않고 적당한 단맛을 내는 양념이라 젓가락을 멈출 수 없는 맛입니다. 주문한 음식들을 열심히 먹다 보면 사장님께서 떡볶이, 된장술밥, 과자까지 서비스로 푸짐하게 내주십니다. 회식 등 단체예약이 많은 편이라 입식 테이블인 1층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1~2주 전에는 예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가빈 커리하우스 광화문 본점

/ IT전략운영부 허도담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2길 7 3층

연락처 02-722-2224

대표 메뉴 커리



추천하는 이유

광화문에서도 단독주택이 많은 조용한 동네에 있는 고가빈 커리하우스는, 일본식 커리 및 인도식 커리를 캐주얼하면서도 모던한 분위기의 실내에서 가성비 있게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철판에 도톰한 갈비살과 수란을 넣은 커리를 끓여가며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유명하고, 단품 메뉴로는 버터치킨 커리가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다진고기로 반숙란을 감싸 바삭하게 튀긴 스카치 에그에 일본식 숙성 커리를 덮은 '에그카츠카레'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한, 가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따뜻해서 식사 후에도 편안하게 오랜 시간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것도 이곳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행복을 얻는가?

/ 기금관리실 김진혁 /

“우리가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존재론적이고 철학적인 문제에 직면할 때, 예전에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이성과 감정의 복합체인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나의 가치관 아래 그럼 나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행복을 얻는지 정말 지속적이고 깊은 고민을 해왔다. 이 글은 나의 정말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가치관이 반영된 글이다.

행복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도 행복을 느낀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 등의 사교적인 인간관계가 남겨준 추억을 떠올리며 행복을 느낀다. 우리가 느끼는 추억은 시간이 쌓일수록 더 깊어지고 소중해진다. 과거는 지속적으로 미화가 되고, 추억은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순간이기에 아련한 냄새를 풍기며 큰 여운을 남긴다. 추억뿐 아니라 우리가 과거로부터 일구어 놓은 성과들도 뒤돌아봤을 때 큰 뿌듯함과 성취를 느낀다. 이것들이 모두 과거의 행복이다. 우리는 과거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현재를 열심히, 후회 없이 사는 것이다.

현재로부터 느끼는 행복은 과거의 행복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과거는 지속적으로 미화가 되지만 현재는 삶의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 아침에 눈을 뜨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 출근을 한다. 그러한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누군가는 현재가 매우 불행하다고만 말할지 모른다. 과거와 미래와 달리, 현재에서 찾는 행복은 아주 한 순간 순간이다. 그러나 우리의 똑같이 반복되는 직장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으며, 팀 안에서 주고 받는 따뜻한 대화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낀다. 우리는 업무 자체에서도, 그러한 업무가 기여하는 의미, 성취감을 통해 동기부여와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러한 순간들 또한 돌아올 수 없는 과거로 변해버리기에 소중하고 행복한 순간들이다. 또한 우리는 각자의 취향은 다르겠지만 각자가 좋아하는 취미가 있을 것이다. 일을 마치고 그러한 취미를 하는 것도 우리에게 행복감을 가져다준다.

미래로부터 느끼는 행복은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강력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중 미래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 월화수목금토일 중 우리가 가장 행복한 요일은 언제인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금요일 혹은 토요일을 고를 것이다. 왜냐하면 내일, 모레 쉬기 때문이다. 그 다음 날 쉰다는 생각들, 단기적이지만 미래가 행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아주 큰 행복이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원동력도 우리가 현재 노력하고 일하면서 살면 더 나은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 아닌가? 그러한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는 다소 빛을 잃을 것이고 지루하게만 느껴질 것이다. 미래에 행복한 그림이 펼쳐지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큼 큰 행복은 없을 것이다. 현재의 행복은 짧을 수 있지만 미래의 행복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우리를 방문할 것이다.

SNS와 현대인의 불행

/ 금융안정TF 이호택 /



제가 생각하는 현대인들의 불행 중 사회적 현상에 의한 요인은 바로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광범위한 타인과의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복함을 느끼는 순간은 사실 거창한 순간이 아닙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퇴근 후 맛있는 음식과 함께 술 한 잔하거나 운동 후 시원한 바람을 쐬 때 등 생각보다 행복은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과의 비교가 시작된다면, 이러한 일상의 행복에 균열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 이에 집착하면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 버리고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작은 성취를 쌓아가는 노력이 아닌, 일확천금과 같은 단기간의 성공을 바라며 내가 비교했던 그 타인의 상태에 빠르게 도달하려 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타인과의 비교가 자신의 주변에서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인터넷의 발달과 SNS 문화의 확산으로 언제 어디서든 광범위한 타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보통 SNS에서는 그 사람의 평상시 모습이나, 성공을 이루기 전의 고생스러웠던 과거의 이야기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좋은 곳에 놀러 가거나, 예쁜 옷 비싼 차를 타고 행복해 보이도록 연출한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연출의 극대화를 위해서 물질적인 요소를 가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이미지나 영상들에 반복 노출되며 행복을 위해서는 물질적 풍요가 중요하다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타인의 취향, 타인의 성공 비결, 타인의 인생에 집중하게 되면 정작 나의 취향과 나의 성공 비결, 나의 인생은 더더욱 알 수 없어집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탐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나'라는 존재인데 우리는 SNS로 인해 타인을 인식하고 비교하는데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을 쓰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SNS 소비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활용의 주체가 된다면 불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SNS는 우리 삶에 나쁜 영향만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체이자 내 생각과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귀중한 플랫폼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내'가 필요한 정보를 주체적으로 찾고 '나의 삶과 생각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물론, 부지런함이 동반되겠죠!), 능동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가. 나의 취향은 어떤가. 스스로에 대해 발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많은 노력과 시간 투자를 통해 발견해야 합니다. 반면, 타인의 삶을 관찰하는 것은 쉬운 오락거리입니다. 그러나 쉽고 빠른 길만 쫓다 보면 삶이 소모적으로 변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고 귀찮음을 동반하더라도 진지하게 자신을 알아가려는 노력이 있어야만 진정 '주체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키를 본인 스스로 꼭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정조준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QR 코드를 스캔해서
새로 바뀐 예금자보호제도를 확인해보세요!

더 넓어진 예금자보호제도

2023년 10월 17일부터

- ✓ 연금저축
 - ✓ 사고보험금
 -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각각 5,000만원까지 별도 보호



예금보험공사 홍보대사
박은하



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DC형, IRP 퇴직연금은 2015년부터 5,000만원까지 별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